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 구축의 경험과 교훈

Lesson from the Cataloging Experience on Multicultural Collection

노 지 현(Jee-Hyun Rho)*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2. 북미 도서관계의 사례 |
| II. 다문화 장서 목록에 대한 논의 | IV. 다문화 장서 목록의 구축 실험 |
| 1. 국외 도서관계 | 1. 실험의 배경, 과정 그리고 내용 |
| 2. 국내 도서관계 | 2. 실험의 한계와 교훈 |
| III. 다문화 장서 목록의 기존 사례 | V. 나오며 |
| 1. 국내 도서관계의 사례 | |

초 록

이 연구는 최근 다문화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의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아시아공동체 부설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만 여권의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 구축 경험에 기초하여 향후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적용할 수 있는 체험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1) 그동안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관한 국내외 도서관계의 기존 논의를 추적하고, (2)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민간도서관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장서 목록 구축의 사례와 북미 도서관계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3) 실제 목록 구축의 경험을 통해 향후 우리 도서관계에 서 다문화 장서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키워드: 도서관 목록, 번차 목록, 목록 DB, 목록 구축, 편목, 다문화 장서, 다문화 자료, 다문화 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cataloging on multicultural collection in Korean libraries. E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d to derive a lesson of immeasurable value from the cataloging experience in International Children's Library at Asia School. To the end, (1) comprehensive literature survey and analysis were conducted to introduce the discussion on cataloging for multicultural or multilingual collection, (2) the cataloging examples were examined comprehensively (the data needed were collected by public, academic and nonofficial libraries in Korea, as well as several libraries in North America), and finally (3) cataloging policy and practices for multicultural collection we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experience in International Children's Library at Asia School.

Keywords: Library Catalogs, Catalog Records, Cataloging, Multicultural Collection, Multicultural Materials, Multilingual Bibliographic Control, Multiscript Materials, Multicultural Libraries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rho@pusan.ac.kr)

• 접수일: 2008년 11월 21일 • 최종심사일: 2008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12월 22일

I. 들어가며

1990년대 초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가 2008년 6월 현재 110만 명에 이르고, 2002년 2만 4천명이던 결혼이민자의 수가 2008년에 11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국내 주민등록인구의 2%를 넘어섰다.¹⁾ 아직 학계에서 합의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의 비율이 10%를 넘을 때 이민사회 또는 다문화 사회로 간주하는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 일컬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사회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나아가 '코시안'이라고 불리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교육문제나 사회적 편견 등에 관한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 있어 '다문화'라는 용어는 여전히 낯설고 요원한 것이었다. 다문화에 대한 개인적 관심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라 그들을 위한 대책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와 관련된 주제가 필자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 바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였다.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도서관 자율봉사대-기적만들기'라는 동아리를 결성하여 매년 도서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 올해의 활동 계획을 모색하던 중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그들을 위한 다문화 도서관을 개관한 "(사)아시아공동체"의 소식이 들려왔다. 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지역 관공서의 협조와 기업의 후원을 통해 태국, 중국,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러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출판된 자료 1만여 권을 어렵게 수집하여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개관과 동시에 이용이 거의 중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학생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후 우선 이들 자료에 대한 목록 DB를 구축하는 일을 추진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의, 그것도 다양한 언어로 표기된 자료의 목록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다국어 기반의 목록을 구축할 만한 제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더 불어 언어의 장벽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다. 이에 국내 도서관들이 이러한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 DB를 구축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아시아공동체 부설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물론이고,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관한 우리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주 찾는 통계(FAS)," <<http://www.immigration.go.kr>> [인용 2008. 10. 20].

학계와 도서관현장의 관심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동안 각국의 언어학이나 지역학 장서를 수집해 왔던 대학도서관들과 최근 다문화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국가의 자료를 구입하여 제공하기 시작한 공공도서관들조차도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결국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였던 북미 도서관의 사례를 담고 있는 문헌을 조사하고, 더불어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그리고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운영하는 민간도서관의 현황과 사례를 보다 세밀하게 추적하면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험과 고민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다문화 가족과 그 자녀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의 구축 문제는 조만간 우리 도서관계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본적인 철학이라면, 제대로 된 목록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가장 기초적인 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그동안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대한 국내의 도서관계의 기존 논의를 추적하고, 현재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장서 목록 구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사)아시아공동체 부설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만여 권의 목록을 구축한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도서관계에서 다문화 장서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비록 1만여 권의 장서를 가진 작은 도서관에서 촉발된 연구이지만, 이 연구는 국내에서 다문화 도서관을 사례로 한 초기의 연구로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 학계와 도서관계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나아가 목록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다문화 장서 목록에 대한 논의

1. 국외 도서관계

일찍이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였던 북미나 유럽의 경우, 다양한 문자로 기록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서관현장과 학계에서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내용을 추적해 보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자료의 고유 문자를 로마자(roman script)로 번자 표기하여 목록을 생산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 그 배경에는 ‘단일목록체계’

2) Karl Lo, “Solutions for Research and Academic Librarian: The American Experiences,” IFLA Worldwide

를 유지해 왔던 서구의 오랜 관행이 내재되어 있는데, 즉 언어나 자료유형, 주제 등에 상관없이 모든 목록을 로마자의 자모순으로 배열하고자 한 것이 그것이었다.³⁾ 이에 더해, 특정 저자나 특정 저작에 대한 목록의 집중 기능(collocating function)을 고수하고자 했던 도서관사서들의 의지와⁴⁾ 로마자가 도서관이용자와 사서에 가장 익숙한 문자이며 어떤 문자보다도 로마자가 자료검색에 용이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문화의식 등이 로마자를 바탕으로 하는 목록의 전통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기저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언어를 달리하는 모든 자료를 하나의 문자로 표기하고자 했던 그들의 생각은 세계 각국의 문자를 로마자로 표현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 번자표(transliteration scheme)의 개발로 이어졌다. ALA와 LC에서는 전 세계 언어에 대한 “Romanization Table”을 개발하였으며,⁵⁾ 영미목록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AACR2에 ‘로마자 번자 표기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이 표를 이용하여 비로마자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한 예시를 수록하였다. 동일한 용어에 대해 다양한 이형표기가 가능한 번자 표기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부터 로마자로 번자 표기된 목록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⁶⁾ 가령, 로마자 알파벳 26자로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음에 근거하여 표기할 경우 동음이의어의 처리가 어려우며, 특히 사서의 관점에서 ‘표준’ 번자 체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결함이 존재할 수 있고, 적용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결국 검색의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나아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번자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기가 어렵고, 또 검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마자로 표기된 내용을 이용자가 다시 원래의 언어로 해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Seminar (Seoul, 1976).

- 3) 이러한 전통과 관행은 당시의 『영미목록규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비로마자 언어의 자료에 대한 표목은 로마자로 번자표기하며, 모든 언어의 자료에 대한 목록은 로마자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 4) 목록의 목적이 “특정 저자에 관한 모든 저작을 집중하는데 있다”는 굳건히 믿고 있었던 전통에 따라 당시의 사서들은 모든 저자와 저작을 로마자로 통일하여 기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물론 저자의 이름을 각국의 고유한 문자로 표기한 후 이들을 상호참조(cross reference)를 통해 연결할 수도 있었지만, 관련 자료를 보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로마자로 통일하여 기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목록의 집중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5) 그 결과 지금까지 개발된 “Romanization Table”은 전 세계 56개 언어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을 수록하고 있다. ALA와 LC에서 개발한 이 table은 지금도 계속 새로운 언어가 추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표기법에 대한 개정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가령, 지난 2000년에는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Wade-Giles 방식에서 Pinyin 방식으로 교체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캐나다 퀘벡의 Nunavik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Inuktitut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내용을 이 table에 추가한 바 있다. (Library of Congress, “ALA-LC Romanization Table,” <<http://www.loc.gov/catdir/cpsr/roman.html>> [cited 2008. 10. 10])
- 6) Hans H. Wellisch, “Multiscript and Multilingual Bibliographic Control: Alternatives to Romaniz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22, no.2(1978), pp.179-190.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장서량과 이용자의 수가 적은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과연 많은 비용을 들여 원어로 서지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로마자 목록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나마 목록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차선택이라는 의견이었다.⁷⁾ 이처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 가운데, 도서관계에서는 점차 목록에서 번자 표기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안을 모색하는 글이 여러 편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논의를 살펴보면, 단일목록체계를 지양하고 언어나 국가별로 분리된 장서 목록을 구축하고, 각각의 목록에 각기 다른 문자를 적용하자는 의견과, 표제에 대해서만은 로마자 이외에 그래픽 문자 등을 활용하여 원어(native script)를 병기하자는 의견, 그리고 사서와 이용자가 번자 체계에 익숙해지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⁸⁾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오랜 관행과 편견,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반대 등으로 인해 목록에서 로마자 번자 표기의 전통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본격적으로 전환의 계기를 맞이한 것은 서지유틸리티에서 다국어 입력이 가능한 편목시스템을 개발한 직후로 보인다. RLG에서는 동아시아 자료에 대한 목록을 구축하기 위해 RLIN East Asian Character Code (REACC)를 기반으로 하는 'RLIN-CJK' 시스템을 1983년에 출시하였고, OCLC는 그보다 몇 년 후인 1986년에 역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자료를 위한 'CJK 350'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이후 아랍 문자를 사용하는 중동 지역의 자료와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구 소련 연방국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로써 자료에 기재된 고유한 문자로 서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 검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자 각 도서관에서는 서지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자료에 기재된 문자로 서지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입력된 서지레코드는 다시 언어별 또는 지역별 '공동목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서지유틸리티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분담편목(shared cataloging)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RLIN과 OCLC 두 서지유틸리티에 의해 비로자마 자료에 대한 처리 능력이 향상되자, 이 시기에는 이들 시스템의 가능성과 효용성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쏠렸다.⁹⁾

이러한 서지유틸리티의 노력과 더불어, 도서관협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은 비슷한 시기에 도서관 현장으로부터 실질적인 협조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펴나갔다. 그 일환으로 ALA에서는 1990년에 “모든 장서의 목록은 자료에 기재된 언어나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도서관

7) C. Sumner Spalding, "Romanization Reexamined,"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21, no.1(1977), pp.3-12.

8) Janet Erickson, "Options for Presentation of Multilingual Text: Use of the Unicode Standard," *Library Hi Tech*, vol.15, no.3-4(1997), p.172.

9) Ali Kamal Shaker, *Bibliographic Access to Non-roman Scripts in Library OPACS: A Study of Selected ARL Academ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2002), pp.23-27.

에서는 이용자들이 영어 또는 자료에 기재된 원어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다언어 자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¹⁰⁾ 이어 IFLA에서는 편목규칙에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수용하는 것으로 변화를 촉구하고 다양한 언어로 입력된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action plan”을 제안하였다.¹¹⁾ 이처럼 서지유틸리티와 도서관 관련 단체들의 공동 노력으로, 기존의 로마자 중심의 목록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중반 유니코드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고, 2000년대 들어 유니코드 체제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전환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70, 80년대에 도서관 업무의 자동화는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장서의 목록 DB는 다언어 처리와 같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여전히 자동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지유틸리티의 노력으로 개별 문자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편목 시스템이 개발되고 각국의 문자로 목록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에서는 각기 다른 문자코드를 가진 컴퓨터 터미널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문자의 표기가 가능하고, 특히 동일한 문자세트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호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유니코드의 개발은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을 위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다.¹²⁾

이에 이때부터 기존의 문자코드를 유니코드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논의하거나, 그동안 언어의 제약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자료를 ‘국제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¹³⁾ 또한, 서지유틸리티에서는 언어별로 각기 다른 문자코드를 적용하고, 이들 문자코드에 기반한 별도의 공동목록을 유지해 오던 방식에 유니코드를 적용하여 ‘중양집중식’ 편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험에 착수하였고, LC에서는 하나의 레코드에 다양한 문자를 수록할 수 있도록 목록규칙과 포맷을 개정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로마자와 원어가 병기된 레코드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졌다.¹⁴⁾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현재 북미 지역에서는 비로마자 자료에 대해 로마자와 원어를

10) 이 가이드라인은 1990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지난 2007년 1월에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된 다음의 자료를 통해 당시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Multilingual Collections and Services*. Reference Services Section of the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7.

11) Sally MacCallum & Ertel Monica, “Automated Systems for Access to Multilingual and Multiscript Library Materials,” *Proceedings of 2nd IFLA Satellite Meeting* (Madrid, 1993).

12) Joan M. Aliprand, “Scripts, Languages, and Authority Control,”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49, no.4(2005), p.243.

13) Foster J. Zhang & Marcia Lei Zeng, “Multiscript Information Processing on Crossroads: Demands for Shifting from Diverse Character Code Sets to the Unicode Standard in Library Applications,” 64th IFLA General Conference (Amsterdam, 1998), <<http://www.ifla.org/IV/ifla64/058-86e.htm>> [cited 2008. 10. 21].

동시에 입력하고 있는 목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사서와 이용자 모두 이전에 비해 “Better Access”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⁵⁾

2. 국내 도서관계

한편, 우리나라는 1964년 한국 최초의 표준안인 『한국목록규칙』을 편찬하면서 영미계의 오랜 전통인 ‘단일목록체계’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배열의 기준이 되는 표목을 “한글로만 표기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외국인명, 서명 등을 번자표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규정은 이후에 개정된 한국목록규칙의 내용에서 배제됨으로써 오늘날까지 표목의 기준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서지기술부에 대해서는 “대상 자료에 쓰여진 언어나 문자 그대로” 기재하되, “한자는 정자와 약자 간의 상호 사용을 허용”하며, “일본가나를 제외한 비로마지는 표준 번자 체계에 따라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¹⁶⁾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목록규칙을 적용하는 모든 외국자료의 경우 표목은 한글 번자로, 서지기술은 원어 또는 번자로 기술한 목록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데 필요한 ‘번자’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나 규정이 없고, 더구나 목록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어의 번자 표기에 대한 예시에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⁷⁾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목록에서 외국어 표기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들이 지난 1970년대 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¹⁸⁾ 비록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들 연구는 외국어 자료에 대한 번자

14) Joan M. Aliprand,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MARC 21 Records in the Unicode Environment,” *Information Technology & Libraries*, vol.24, no.4(2005), pp.170-179.

15) Ali Kamal Shaker, *op. cit.*

16)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제4판.

17) 표목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목록규칙(제2판)에는 번자표기의 정의나 표기법 기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부록으로 ‘로마자표기법’, ‘로마자의 한글화표기법’, ‘일본가나리의 한글화표기법’을 수록하고 있지만, 본문 조항에 그와 관련된 규정이나 설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예시에 적지 않은 모순이 있어 표기의 일관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가령, 일본인명에 기재된 한자의 경우 한자의 일본음을 한글로 표기한 예시가 있는가 하면, 중국인명에 기재된 한자는 한자의 한글음으로 표기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과 중국의 적용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번자가 현지에서 사용하는 음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음에 대한 것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

18)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최달현, “도서관목록상 번자표기의 실태와 제 문제: 우리나라 공공 및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경대논문집 제28집*(1979), pp.209-223. ; 유경숙, “외래어표기법과 도서관목록상의 번자표기문제,” *부산산업대학교논문집 제9집*(1988), pp.151-173. ; 김영귀, “목록에 있어서의 일본인명 표기,” *도서관학논집 제20집*(1993), pp.285-315. ; 유경숙, “현행외래어표기법과 목록규칙상의 번자표기규정: KCR, KORMARC 기술규칙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6집 1권*(1995), pp.159-188. ; 유경숙, “다언어 다문화 장서의 서지통정수단으로서의 번자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8집 1권*(1997), pp.353-399. ; 모토요시 히로시·김태수, “JAPAN/MARC과 KORMARC에서 일본어 표기에 관한 연구,” *지식처리연구 제2권 제2호*(2001), pp.69-84 ; 김태수·강현민, “중국어자료 목록을 위한 KORMARC에서의 한어병음(PINYIN) 번자표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처리연구 제4권 제1호*(2003), pp.39-59. ; 김진영, *도서관목록에서 중국어 문자 표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2008).

표기의 무질서와 혼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을 모색할 것을 공통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가령, “목록 구축 과정에 필요한 각 언어별 표준 번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 “외국어 자료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리 규정을 목록규칙에 수록해야 한다”는 선언적 주장에서부터, 단위 도서관에서는 “언어별 전문사서”를 양성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목록을 구축하도록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등과 같은 실무적 방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주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실정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문제는 처방은 이미 내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실행 방안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진 문제해결의 노력이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도서관현장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하나의 문자로 번자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도서관과 도서관협회, 그리고 서지유틸리티가 합심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온 북미나 유럽 도서관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수준은 30여 년 전 국내에서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되었던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논의의 대상이 중국자료, 일본자료 등으로 구체화되고 외국인명에 대한 전거레코드의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추가되었을 뿐 기본적인 문제 제기나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대안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다문화 도서관을 개관하거나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준비하는 도서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조만간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Ⅲ. 다문화 장서 목록의 기존 사례

1. 국내 도서관계의 사례

국내 도서관계에서의 다문화 장서 목록 구축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례를 직접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은 최근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장서를 수집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4개관과 이주민 관련 단체나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도서관 4개관, 그리고 어문학 및 지역학 장서를 구비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3개관 등이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공도서관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단지역과 결혼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도서관은 외국인 이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오랜 타국 생활에서 겪는 모국에의 향수와 정보 소외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권단체나 기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

고 있는 곳이었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관련 학과의 교수진이나 학생들의 정보요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교적 오래 전부터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해 온 경험이 있는 곳이었다.¹⁹⁾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각 도서관의 목록담당사서(민간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담당자)와의 면담과 OPAC 검색 결과 화면 또는 담당사서가 제공해 준 목록레코드를 통해 수집하였다.

먼저, 각 도서관에서 구축한 목록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사례로 분석하고자 선정된 도서관들이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국가의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 중 3개의 공공도서관과 3개의 민간도서관에서는 현재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을 전혀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언어의 제약으로 목록 구축이 힘들고”, “자료 입수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여 목록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으며”, “다문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최근에 1,300여 장서를 확보하여 도서관 내에 ‘다문화자료실’을 개설한 공공도서관의 담당자는 “아직은 소장 자료와 이용자의 수가 적어서 목록을 구축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며”, “다문화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주로 외국인 이주민)들이 굳이 목록을 통해 자료를 찾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목록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KOLASⅡ 프로그램에서는 다국어 지원이 안 되므로 차후에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KOLASⅢ를 도입하면 일괄적으로 목록레코드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이처럼 뜻밖의 결과를 접하고서 목록 구축을 어렵게 하는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현재 우리 도서관계에서 수집하고 있는 ‘다문화장서’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며, 이들 장서에 표기된 언어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데 우선 주목하였다. 가령, 현재 조사대상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다문화 자료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러시아,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비록 소장하고 있는 각 국가별 자료의 양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용자들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하려다보니 자료의 생산국이 이렇듯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자료의 표기 문자가 자료의 생산국

19) 관련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도서관은 인권단체와 종교단체, 기타 사회단체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한국 정착이나 모국으로의 귀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먼저 시작하였으며, 공공 영역에서는 이보다 뒤에,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단지역과 결혼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사할린 귀국 동포 노인들이 정착한 지역 등에 위치한 공공도서관들이 다문화서비스를 개척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용완,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pp.245-269. ; 조용완,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pp.429-456.).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장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도서관 4개관과 공공도서관 4개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관련 학과의 교수진이나 학생들의 정보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영어자료 외에 러시아,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 인도, 베트남 등의 자료를 구비해 온 대학도서관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참고하기 위해 대학도서관 3개관을 포함시켰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민간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현재 적게는 몇 백 권에서부터 많게는 13개국의 5천여 자료에 달하는 장서를 확보하고 있다.

수만큼이나 다양하다는데 있다. 다음 <표 1>은 이들 자료에 쓰여진 문자를 보여주는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표준 문자로서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자료는 평소에 접하기도 어려운 생소한 문자로 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언어'에 대한 제약이었던 것이다.

<표 1> 다문화 장서의 표기 문자

생산국	문자	생산국	문자
중국	한자 (간체자)	베트남	로마자
일본	가나	인도네시아	로마자
러시아	키릴 문자	필리핀	로마자
우즈베키스탄	키릴 문자	태국	타이 문자
몽골	갈릭 문자	미얀마	미얀마 문자
네팔	네팔 문자	캄보디아	캄보디아 문자
방글라데시	벵골 문자	스리랑카	신할라 문자

언어의 제약과 더불어 목록 구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을 현재 도서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자동화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장서의 표기 언어가 다양하다면, 이들 자료에 대한 목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에서 이들 언어로 서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례 도서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의 유형과 특징을 조사하였는데, 사례로 선정한 도서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다국어 문자의 입력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이들 시스템에 적용된 문자코드는 KS C 5601로서 한글, 한자, 일본가나, 그리스문자, 라틴문자, 러시아문자 등 8,836자만 입력이 가능하여 이외의 문자는 표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2005년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SLIMA-NET, SOLAS DLiⅡ, MAELISAⅡ, ODIS-U 등과, 2009년 출시 예정인 KOLASⅢ가 유니코드를 적용하고 있어 다국어 문자의 입력이 가능하지만, 이들 시스템의 사용률이 아직은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 도서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목시스템은 대부분 다문화 장서에 대한 표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거나, 목록을 구축하더라도 이들 자료에 쓰여진 고유 문자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문자코드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도서관연감 2007』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조사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2007』, (한국도서관협회, 2008), p.694).

〈표 2〉 국내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의 다언어 지원 현황

시스템명	제작사	출시년도	사용 현황				문자코드
			공공	대학	전문·특수	계	
KOLASⅡ	국립중앙도서관	2000	400	2	16	418	KS C 5601
TG XMLAS	퓨처 인포넷	2001	4	65	3	72	KS C 5601
TG XMDL	퓨처 인포넷	2001					KS C 5601
SOLAS	아이네크	1992	7	54	9	70	KS C 5601
SLIMA-ST	미르테크	1998	4	37	3	44	KS C 5601
KOLAS	국립중앙도서관	1992	31	5	2	38	KS C 5601
TG-Vintage LAS	삼보정보시스템	1994	-	36	1	37	KS C 5601
S@3000	SA&K	1998	3	14	19	36	KS C 5601
VOLCANO-i	라이브텍	1999	-	21	8	29	KS C 5601
ODIS	인포테크	2001	-	26	-	26	KS C 5601
MAE	경일시스템	1991	11	6	4	21	KS C 5601
4L	라이브텍	1995	-	7	2	9	KS C 5601
AIMS	코아정보시스템	1993	-	4	-	4	KS C 5601
SLIMA-NET	미르테크	2005	-				유니코드
SOLAS DLiⅡ	아이네크	2005	-				유니코드
ODIS-U	인포테크	2005	-				유니코드
MAELISAⅡ	경일시스템	2006	-				유니코드
KOLASⅢ	국립중앙도서관	2009	-				유니코드

※ 시스템별 사용 현황은 『한국도서관연감 2007』을 참조한 것임.

이어, 현재 다문화 장서의 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목록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민간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사례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는데, 가령 2008년에 처음으로 다문화 자료를 구입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지방의 한 공공도서관에서는 자료를 납품하는 중개상을 통해 외부에서 생산된 목록레코드를 구입하고 있었으며, 2005년부터 도서관사업을 추진해 온 시·군·구 단위의 민간도서관의 경우 비록 간단한 형태이긴 하지만 5천 여 장서에 대한 목록을 직접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도서관들은 언어해득이 가능한 일본어, 중국어 등은 목록담당사서가 직접 입력하거나 공동목록을 활용하고 있었고, 그 외의 언어로 표기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서지레코드를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중개상을 통해 목록을 구축하는 방식은 중개상 자체가 전문인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고려되지 못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중개상이 등장하자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방식에 따라 구축된 목록레코드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목록 구축 방식과 상관없이 모두 통일성과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심지어 동일한 방식에 따라 구축된 목록레코드의 경우에도 자료의 생산국이나 언어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상이했으며, 표기

언어도 번자 표기와 원어 표기 등으로 일관성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요소별 또는 데이터 필드별로 상이한 문자와 상이한 표기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표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음 <표 3>과 같이 한글 번자, 로마자 번자, 원어, 원어 번역 표기와 같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였으며, 서지기술부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한글이나 로마자를 이용하여 임의로 표기해 놓은 것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한자를 포함하는 일본어나 중국어의 경우에는 한자를 우리 음으로 표기한 경우와 현지 음으로 표기한 경우, 그리고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경우와 로마자로 표기한 경우 등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데이터도 ‘발음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표기하다보니 일관성이 전혀 없었다. 이외에도, 한자의 약어(간체자)와 정자(번체자)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거나 데이터를 불완전하게 기술한 경우 또는 잘못 기술한 경우 등도 더러 발견되었다(<그림 1>~<그림 3> 참조).

<표 3> 데이터의 표기 사례

대상자료의 문자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한글 번자		로마자 번자	원어 표기	원어 번역	기타
	한자의 한글 음	현지 음의 한글	현지 음의 로마자	원어 그대로	한글 번역	
今モド子	금모도자	콘모도코	Kon, Modoko	今モド子	-	コンモドコ 금모도자
目録の作り方	목록노작리방	모쿠로쿠노 쓰쿠리카타	Mokurokuno Tsukurikata	目録の作り方	목록을 만드는 법 / 목록의 작성법	もくろくのつくりかた 목록의작리방
毛泽东 (간체자)	모택둥	마오쩌둥 / 마오쩌둥 / 마오쩌둥...	Mao, Tse-tung Mao, Ze-dong Mao, Tze-tung ...	毛澤東(번체자) 毛泽东(간체자)	-	Máo Zédōng (한어병음표기)

090		a375.083b세69다
100	1	a세미코.타지마. d1940-
245	20	aだいふくもち/ d田島征三 글
260		a東京: b福音館書店. c1977
300		a31p. :b삽도; :c20×27cm
440	10	a《こどものとも》傑作集
653		a머린이 걸작집
940		a다이푸쿠모치
950	0	bW8800

090		a670.99b팜77노
100	1	aPHAM DUY
245	10	aNH0 HOI U C PHAM DUY/dby PHAM DUY
260		aHanoi:bNha Xuat Ban Tre.c2005
300		a282 p. :billus.;c23cm
500	00	a베트남도서
653		a베트남도서a자서전a음악가
740	0	a그리운 Pham Duy의 자서전
900	11	a팜 듀이
940		a노 호이 우 깡팜 두이
950	0	bW10600

<그림 1> 표목의 표기 방식이 다르고(한글 vs. 원어), 번자나 번역 데이터의 일관성이 없음.

090	--	▼a720,76▼b범12상▲			
100	1_	▼a범개태▼q范开泰▲	중국어 간체자		
245	10	▼a商务汉语考试习题解析/▼d范开泰, ▼e吴勇毅, ▼e顾顺莲 [共]主编▲			
260	--	▼a北京:▼b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c2007▲			
300	--	▼a164 p. ;▼c26 cm +▼eC	100	1	▼a침, 서영
653	--	▼a무역한어▼a무역중국어	245	10	▼a商务汉语入门:▼b基本礼仪篇/▼c沈 庶英 编著; 熊 文华 英文翻译
700	1_	▼a오용의▲	246	11	▼aGateway to business Chinese, regular formulas and etiquette
700	1_	▼a고순련▲	260		▼a北京:▼b北京大学出版社,▼c2005. 중국어 번체자
			300		▼a195 p. :▼b插图;▼c26 cm.
			440	0	▼a商务汉语系列教材:▼v1
			700	1	▼a용, 문화
			900	1	▼aCh'en, Shu-ying 중국어 한어병음
			900	1	▼aHsiung, Wen-hua
			940		▼aShang wu han yu ju men 불완전표기사례

<그림 2> 표목의 형식이 다르고 중국한자의 표기방식이 다름(간체자 vs. 번체자, 한어병음)²¹⁾

090	--	▼a792,803 ▼b마77로▲			
100	1_	▼a마주르, 유,엔,▲			
245	10	▼a로조사전=▼x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СЛОВАРЬ/▼d유, 엔, 마주르;▼e엘, 베, 니콜스키 共著,▲			
260	--	▼a모스크바:▼b생동한말출판사,▼c1998	005		20070816110029▲
300	--	▼a[502]p. ;▼c27cm.▲	008		960906s1991 ru 001 0 rus d▲
500	00	▼k단어의, 단어결합 약120000개▲	020		▼a5244006606▲
653	--	▼a러시아사전 ▼a러한사전 ▼a노한사전	090		▼a914.7 ▼bE34t▲
700	1_	▼a니콜스키, 엘, 베,▲	092		▼a947.06▲
			100	1_	▼aЭйдельман, Натан Яковлевич▲
			245	10	▼aТвой 18-й век;▼bПрекрасен наш союз ... /▼cН. Я. Эйдельман.▲
			260		▼a[Издательство]:▼bМысль,▼c1991.▲
			300		▼a397 p. ;▼c22 cm.▲

<그림 3> 러시아 자료에 대한 한글 서지기술 vs. 원어 서지기술

이러한 당혹스러운 현실을 접하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 일까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 결과, 우선 다문화 장서의 목록을 구축하는데 근거가 되는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목록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예시가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고,

21) 특히, 한자로 표기된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에 대해 <그림 1>에서는 '현지 음의 한글 표기'를, <그림 2>에서는 '한자의 한글 음'을 적용함으로써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의 표목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조차도 다문화 장서에 속하는 다양한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무에 적용하고자 할 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령, 표목을 한글로 표기하고 서지기술부에 비로마자를 번자로 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번자 표기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도서관마다 '자의적인 해석'에 준해 '입의 규정'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의 목록규정 속에는 단위 도서관에서 생산하는 목록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2. 북미 도서관계의 사례

국내의 사례에 이어 이번에는 북미 도서관계에서 생산한 다문화 장서의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조사는 미국의 국가도서관인 LC와 분담편목을 주도하고 있는 OCLC, 그리고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뉴욕공공도서관과 캐나다 토론토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목록의 체제나 내용 면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는 '표준 번자'의 사용과 '로마자와 원어'를 동시에 표기하는 방식에 있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북미 도서관계의 경우 오래 전부터 비로마자에 대한 표준 번자표를 개발하여 비로마자 자료에 대한 서지통정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이렇게 개발된 표준 번자표는 각국의 언어나 문자 고유의 특성을 가능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개정을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자 표기의 방식이 여전히 이용자들의 접근을 저해하는 장애가 되자, 목록에 '원어'를 병기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그림 4>와 같이 표준 번자로 표기된 모든 데이터의 값에 해당하는 원어나 이형표기를 입력하기 위한 필드(880 필드)를 새로 제정하고²²⁾ 번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들 데이터를 함께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는 목록에서 번자와 원어를 나란히 병기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에 접근하거나 검색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2) MARC21에서는 로마자와 원어를 동시에 수록하기 위해 880 필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880 필드는 표목이나 서지기술부에 수록된 데이터와 언어나 문자가 다른 데이터를 수록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880 필드를 사용할 경우, 다음 예시 (1)과 같이 식별기호 "\$6"을 이용하여 각각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 880 필드에 수록된 데이터는 다음 예시 (2)와 같이 OPAC에서 식별기호 \$6을 통해 연결된 데이터들이 나란히 병기되어 나타난다.

(1) MARC21에서 880 필드의 사용 예	(2) OPAC 화면에서의 880 필드 처리
100 0 \$6880-01\$aLaozi	기본표목 Laozi
245 10 \$6880-02\$aDao De jing /\$c[Laozi]	老子
...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Dao De jing / [Laozi]
880 0 \$6100-01\$a老子	道德經 / [老子]
880 10 \$6245-02\$a道德經 / \$c[老子]	

245 00	6 880-01 a Han'guk munhak iran muöt in'ga / c Yi Mun-yöl, Kwön Yöng-min, Yi Nam-ho yökküm ; Kim U-ch'ang ... [et al].	
250 __	6 880-02 a 1-p'an.	표준화된 번자 표기 - 한글의 경우 McCune-Reischauer 방식을 미국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260 __	6 880-03 a Söul ; b Minümsa, c 1995.	
300 __	a 372 p. ; c 23 cm.	
504 __	a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650 _0	a Korean literature y 20th century x History and criticism.	
650 _0	a Korean literature x History and criticism.	
700 1_	6 880-04 a Yi, Mun-yöl, d 1948-	
700 1_	6 880-05 a Kwön, Yöng-min, d 1948-	
700 1_	6 880-06 a Yi, Nam-ho.	
700 1_	6 880-07 a Kim, U-ch'ang.	
880 00	6 245-01/\$1 a 한국 문학 이란 무엇 인가 / c 이 문열·권 영민·이 남호 엮음 ; 김 우창 ... [et al].	
880 __	6 250-02/\$1 a 1판.	각 필드에 대한 원어 표기 - 880 필드와 식별기호 \$6을 통해 로마자 번자와 원어로 표기된 데이터를 연결함
880 __	6 260-03/\$1 a 서울 : b 민음사, c 1995.	
880 1_	6 700-04/\$1 a 이 문열, d 1948-	
880 1_	6 700-05/\$1 a 권 영민, d 1948-	
880 1_	6 700-06/\$1 a 이 남호, d 1948-	
880 1_	6 700-07/\$1 a 김 우창, d 1948-	

Type of Material: Book (Print, Microform, Electronic, etc.)

Main Title: Han'guk munhak iran muöt in'ga / Yi Mun-yöl, Kwön Yöng-min, Yi Nam-ho yökküm ; Kim U-ch'ang ... [et al].
한국 문학 이란 무엇 인가 / 이 문열·권 영민·이 남호 엮음 ; 김 우창 ... [et al].

Edition Information: 1-p'an.
1판.

Published/Created: Söul : Minümsa, 1995.
서울 : 민음사, 1995.

Description: 372 p. ; 23 cm.
ISBN: 8937422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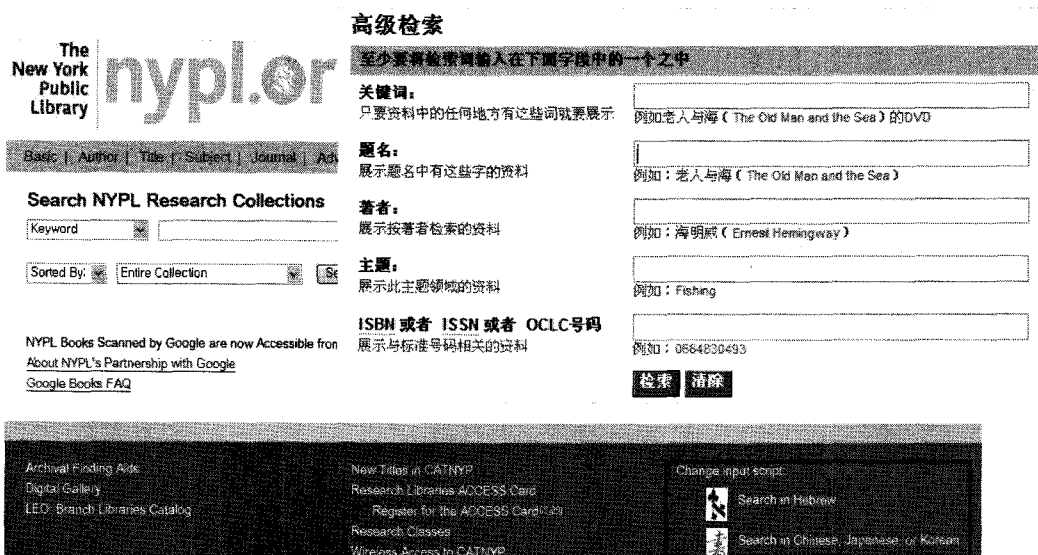
〈그림 4〉 '로마자 + 원어'로 표기된 한국어자료 목록레코드의 사례

목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목록의 구축방식에서도 북미 도서관의 사례에서는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미 서지정보의 공유를 경험하고 그로 인한 실리를 체감해 온 그들로서는 다문화 장서의 목록 DB도 당연히 공동으로 합심하여 구축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서지유틸리티가 앞장서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해 온 분담편목시스템을 통해 단위 도서관에서는 그들 각자의 역량만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다문화 장서의 목록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었고, 단위 도서관에서 구축한 목록은 다시 종합목록에 수용되어 다문화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서지도구이나 검색도구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동 작업을 통해 단위 도서관은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은 물론이고, 다문화 자료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이렇듯 공동으로 목록을 생산하는 방식은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먼저, 다문화 장서의 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목록을 공동으로 생산하면서 실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원칙과 기

준은 다시 목록 구축 과정에서 엄격히 지켜지면서 목록의 품질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서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다문화 장서의 목록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면서, 이들은 서지유틸리티 내에 각 언어별 또는 지역별 협의회를 만들고, 협의회 차원에서 언어나 문자의 특성에 적합한 목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다문화 장서의 목록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법을 가려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섰다. 그 결과, 단위 도서관들이 개별적으로 안고 있는 목록 구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현재의 모습과 같이 품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들은 최근 들어 다문화 장서의 검색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원어로 입력된 서지레코드와 종합목록을 토대로 다문화 장서의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검색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가령, 다음 <그림 5>와 같이 미국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장서의 검색을 위해 이용자가 선호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OPAC에서 다국어 문자 입력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선택한 문자로 표현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익숙한 언어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듯 북미 도서관에서 다문화 장서의 목록은 도서관 사서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려 한 초기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이용자의 탐색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이용자 지향적 관점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입력문자 변경 화면과 다국어 검색 화면

IV. 다문화 장서 목록의 구축 실험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북미의 도서관들과는 달리 다문화 자료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우리 도서관들은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 장서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목록을 이에 구축하지 못하고 있거나 참조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정의 부재로 인해 도서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목록을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와 시스템의 기능 제약으로 인해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하다보니 목록의 혼란과 무질서를 더욱 가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필자는 “(사)아시아공동체 부설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만 여권의 다문화 장서를 대상으로 하여 목록을 직접 구축해 보는 실험을 통해 향후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적용할 수 있는 “체험적”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필자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목록 구축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과 그로부터 도출한 한계와 교훈을 담고 있다.

1. 실험의 배경, 과정 그리고 내용

“(사)아시아공동체”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들을 위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여, 지난 2008년 5월 9일에 다문화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그들이 수집한 자료는 12개국의 1만여 자료에 이르렀으나, 도서관을 운영할 만한 인력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필자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목록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돕고자 하였다. 우리는 목록 구축에 앞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외 도서관계의 사례를 참조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사)아시아공동체 부설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였다. 논의 내용은 목록 구축 과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목록 구축을 위한 편목시스템을 결정하는 것 등이었다. 이어, 우리는 목록의 구축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먼저, 다국어 장서의 실물을 확인한 후 목록에 표기되어야 할 데이터 요소 및 요소별 표기법을 결정하였다. 데이터 요소는 한국목록규칙과 KORMARC 통합서지용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며, 각 데이터의 표기법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대상자료에 쓰여진 언어나 문자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편의성을 감안하여 번자나 번역 데이터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번자나 번역 데이터는 한글에 보다 익숙하거나 자료에 기술된 언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대안이었다. 이렇게 하여 데이터 요소를 결정하고, 이 중에서 표제, 저자, 발행사, 총서명 등과 같은 핵심 데이터에 대해서는 원어와 한글 번자, 로마자 번자, 그리고 필요할 경우 한글 번역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다음 단계의 작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 요소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검색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시스템의 선정에 있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요건은 다국어 입력 기능이었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상용 도서관시스템 중에는 다국어 입력이 가능한 것이 없었으며, 최근 개발된 유니코드 기반의 시스템들은 공공도서관이나 “(사)아시아공동체”와 같이 작은 도서관에서 도입하기에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큰 것이었다. 이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법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데이터를 먼저 입력한 후 KOLAS III와 같이 유니코드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차후에 입력된 데이터를 일괄 반입하는 것이었다.

시스템 문제를 어렵게 결정하고 난 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록 구축에 필요한 제반지식은 물론이고 12개 국가의 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춘 인력이었다. 중국어, 일본어 자료와 같이 우리 팀 내에서 언어해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이 가능하였지만, 태국어, 네덜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은 문자의 식별조차 어려워 목록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들 언어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와 해당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목록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장서의 특성상 KDC나 DDC와 같은 표준분류표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다문화 장서’이면서 ‘어린이 장서’라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류표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준비작업을 마친 후, 우리는 다음 <그림 6>과 같이 각 국가별 자료에 대한 목록레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하였다. 입력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에 대한 제약이었다. 참조할 만한 공동목록이 국내에 존재하거나 자료를 출판한 각국의 도서관 목록을 참조할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한 여건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차선책으로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전을 참고해 가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그리 만만한 과정이 아니었다. 특히, 번자 표기 과정에서 참조할 만한 각 언어별 번자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되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외래어표기법』이 외래어를 한글 자모로 표기하기 위한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관련 외국어를 한글로 번자 표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이 규정에서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와 기타 동구권 언어에 대한 표기세칙만을 수록하고 있어 이에 속하지 않는 언어(가령 몽골어, 네덜어, 방글라데시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등)의 경우 참조할 수 있는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음에 최대한 충실하게 번자 표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며, 이로 인해 동일한 어휘에 대한 다양한 이형표기가 입력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대한 협의해 나가면서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표제(원어)	표제(영어)	표제(한글)	표제(영문)	저자(원어)	저자(영어)	출판사	출판년
N0000001	गणेशको लइइ	갈니스꼬러두	갈니스사탕	पुरुषोत्तम सापकोटा	푸르스탐 삽꼬라	जनक शिक्षा	1983
N0000002	गणेशको लइइ	갈니스꼬러두	갈니스사탕	पुरुषोत्तम सापकोटा	푸르스탐 삽꼬라	जनक शिक्षा	1983
N0000003	जनकीरी	둔기리	반딧불이	अर्जुन विलास पन्त	알준빌라스번더	जनक शिक्षा	1983
N0000004	जनकीरी	둔기리	반딧불이	अर्जुन विलास पन्त	알준빌라스번더	जनक शिक्षा	1983
N0000005	वालक धुव	발라드루바	아기염소	पुरुषोत्तम सापकोटा	푸르스탐 삽꼬라	जनक शिक्षा	1981
N0000006	वालक धुव	발라드루바	아기염소	पुरुषोत्तम सापकोटा	푸르스탐 삽꼬라	जनक शिक्षा	1981
N0000007	चङखे र बाँदर	장케 이러바달	만담가원숭이	रण बहादुर थापा	라나바하룰다바	जनक शिक्षा	1979
N0000008	चङखे र बाँदर	장케 이러바달	만담가원숭이	रण बहादुर थापा	라나바하룰다바	जनक शिक्षा	1979
N0000009	घम्ले मेघमाथि अन्	곰네미츠마티안도	의자에앉아있는장님	भूपी शेरचन	보미세얼전	साझा प्रकाशन	1969
N0000010	मैँदु	맹두	맹두	लक्ष्मी प्रसाद देवकोट	라치미브로삿데외	साझा प्रकाशन	1958
N0000011	कुसुमिनी	꽃저니	꽃저니	लक्ष्मी प्रसाद देवकोट	라치미브로삿데외	साझा प्रकाशन	2002
N0000012	गौरी	꼬리	꼬리	माधव घिमिरे	마더기미레	साझा प्रकाशन	2003
N0000013	पन्द्र तारा र नेपाली	번드러다라러네풀	15인 작가 작품집	कृष्ण प्रसाद पराजुली	크리슈너브로삿데외	साझा प्रकाशन	1967
N0000014	के छ र जिन्दगी बि	게쳐러친다기비	인생을 즐기자	काली प्रसाद रिजाल	갈리브로삿데외	साझा प्रकाशन	1979
N0000015	सबै जातको फूलबारी	서브이차다고플	여러민족들의 꽃밭	डोर बहादुर विष्ट	돌바하룰다바	साझा प्रकाशन	1973
N0000016	लालित्यः ?	라리디어:1	라리디어:1	कवि शिरोमणी लेखन	시로모니라크나트	साझा प्रकाशन	1967
N0000017	नेपाली कविताः ?	네팔리꺼비따	네팔이야기	वासुदेव त्रिपाठी	브라다바수데브	साझा प्रकाशन	1989
N0000018	सुलोचना	수로저너	수로저너	महाकवि लक्ष्मी प्रसाद	라치미브로삿데외	साझा प्रकाशन	2000
N0000019	उर्वशी	우르비시	우르비시	सिद्धिचरण श्रेष्ठ	씨디췌런스레스트	साझा प्रकाशन	1961
N0000020	लालित्यः २	라리디어:2	라리디어:2	कवि शिरोमणी लेखन	시로모니라크나트	साझा प्रकाशन	1984
N0000021	ऋग्विचार	리우비차러	계절의 생각	लेखनाथ पौड्याल	래크나트바우델	साझा प्रकाशन	1975
N0000022	राष्ट्र निर्माता	라스트라닐마따	순국지사	माधव घिमिरे	마더기	साझा प्रकाशन	1979
N0000023	नेपाली पद्यसङ्ग्रह	네팔리버다성그	네팔시집	(सामूहिक)	텍비르무기야	साझा प्रकाशन	1999
N0000024	सीता हरण	씨따허러너	패배자씨따	महाकवि लक्ष्मी प्रसाद	라치미브로삿데외	साझा प्रकाशन	1967

〈그림 6〉 네팔자료에 대한 서지데이터 입력 화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레코드의 입력이 완료되자 이번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서관자동화시스템에 데이터를 반입하기 전까지 현재 구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다문화 장서에 대한 최대 이용자는 외국인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원하는 자료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별 자료의 자모순 리스트’(A to Z list)와 ‘주제별 소장자료 리스트’(Subject Directory)를 만들고, 표제, 저자, 발행사 등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다국어 입력’ 검색모듈을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에 필요한 안내문과 검색 도움말 기능을 각국어로 제작하여 첨부하였다.

2. 실험의 한계와 교훈

“(사)아시아공동체 부설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다국어 장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목록을 구축한 국내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 구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한계를 경험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에 기초하여, 여기서는 향후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을 시도하는 도서관들이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참고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을 구축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다. 특히, 현재 다문화 장서를 수집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단지역이나 결혼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도서관에서 목록 구축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백 번 양보하여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제약이나 기타 제반 요건의 미비로 인해 단위 도서관 차원에서 목록을 구축하는 일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이번 우리의 실험은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그 해결책은 북미 도서관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던 북미 지역의 도서관들은 이 문제를 같은 처지에 있는 도서관들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개별 도서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상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갔다. 국가도서관과 서지유틸리티의 리더십과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이에 대한 단위 도서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다른 자료에 비해 훨씬 처리하기가 까다로운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 구축을 개별 도서관의 몫으로만 돌리기에에는 도서관마다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너무도 많았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중복 투자로 인한 인력과 자원의 손실일 것이 분명하였다. 다행히도 우리 도서관계는 지난 10여 년간 협력을 통한 목록 구축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단위 도서관에서 목록 구축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절감하고, 목록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심분 되새겨 다문화 장서의 수집과 목록 구축을 위한 도서관들 간의 특별한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동남아 장서'와 같이 지역별 또는 언어별 협력체도 좋고, 다문화자료에 관심 있는 공공도서관과 민간 영역의 다문화 도서관 간의 협력도 좋다. 단지 이러한 협력을 주도할 '주체'(국가도서관이나 도서관 협의체)와, 단위 도서관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뿐이다. 국가도서관이나 도서관 협의체가 나서서 관련 정책과 실무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단위 도서관의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자료수집이나 목록 구축과 관련된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이러한 협력은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깨달은 두 번째 교훈은, 목록의 내용적 또는 형식적 완전성을 갖추는데 있어 우리 도서관계의 규정과 지침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현재 우리는 표목과 서지기술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번자 표기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여기에, 다국어 문자의 입력을 위한 체제와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지기술은 대상자료에 쓰여진 언어나 문자 그대로" 기술하되, "비로마자는 표준 번자 체계에 따라 적을 수 있다" 등과 같은 규정은 다양한 문자로의 입력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표준' 번자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번자나 원어를 동시에 입력하려고 해도 KORMARC 데이터 필드의 부재로 인해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필드를 임

의로 활용하거나 로컬 필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결함이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중하고, 이는 검색효율의 저하로 이어져 검색결과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목록에 대한 이용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가 궁극적으로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서지정보의 공유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목록이 내용적·형식적 완전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각종 규정과 도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문자로 표기된 다문화 장서의 특수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과 지침을 목록규칙과 목록형식에 포함하고,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을 도서관계 차원에서 검토하여 이를 표준 번자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문화 자료에 수록된 서지정보를 적절히 담을 수 있는 목록레코드의 구조와 그러한 정보를 적절히 제시할 수 있는 원칙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²³⁾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도서관들 간의 협력이며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조정하고, 업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어 이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문화 장서의 목록을 구축하면서 맞닥뜨린 또 하나의 걸림돌은 다국어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의 부재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은 KS C 5601 문자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문화 장서의 다양한 언어를 표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 시스템은 최근 유니코드 기반으로 체제를 전환하거나 유니코드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들이 등장하고 있어 조만간 전 세계의 문자를 표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이들 시스템이 상당히 고가다보니 개별 도서관의 입장에서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을 위해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이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OCLC의 경험은 우리에게 참신한 교훈으로 다가온다.

OCLC에서는 언어별 제약으로 인해 개별 도서관에서 목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언어별로 분리된 공동목록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특정 언어(비로마자)에 대한 목록은 자관 시스템이 아닌 공동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또 이용자들에게는 OCLC의 공동목록을 통해 자관 소장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도서관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원어로 자유롭게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나아가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23) 목록레코드의 구조에서 마련되어야 할 내용은 MARC21의 880 필드와 같은 다양한 문자를 표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다국어 입력을 위해 KORMARC의 ‘반복 불가’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 필드(가령, 245 필드)에 대해 반복 기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되어 있는 KORMARC의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보다는 MARC21과 같이 새로운 필드의 제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자료에 대한 포괄적 검색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OCLC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언어별로 분산되어 있던 공동목록을 유니코드로 전환하여 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지 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니코드(UTF-8)로 구축된 목록레코드와 기존의 ASCII 코드(MARC-8)로 구축된 목록레코드가 데이터의 손실 없이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검증 프로그램("MARC-8 verify tool")을 개발함으로써 상이한 문자코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OCLC는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도서관에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과 표준 도구가 개발되고, 다국어 입력을 위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한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리의 경험에서도 언어의 한계는 자체적으로 극복하기에 난감한 문제였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각 언어에 능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우리 도서관이 처한 환경과 실정을 감안할 때 이는 현실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대안으로 목록레코드의 국제적 차원에서의 상호 교환을 우선 활용하는 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침 IFLA나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이와 관련된 정책 개발에 지역, 국가, 국제적 네트워크들이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 국가도서관 간에 서지정보의 상호교환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과 구체적인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활용한다면 언어의 한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유니코드나 목록의 표준화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이주민 자원봉사자나 다문화 관련 단체의 협조와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을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그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국내 도서관계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타까웠던 점은 이렇듯 어렵게 구축한 목록을 검색도구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러시아,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자료 등을 구비하고 이들 장서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색 기능이나 도움말 기능이 부재하다보니 이용에 제한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필자 역시 다문화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어렵게 추적하여 그들이 구축한 목록에 접근하려고 해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료의 소장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검색시스템에 '다국어입력' 장치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글 또는 로마자로 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적절한 검색어를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담당사서로부터 MARC 레코드를 직접 전달받거나, 소장 자료를 확인한 후에 목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러한 경험에서 필자는 현재 우리 도서관들의 서비스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다문화 장서를 어렵게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을 통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거나, 목록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원하는 자료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어 있어 수집과 관리에 투입한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번에 목록 DB를 구축하면서 한글이나 원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나, 소장 자료에 대한 국가별 자모순 리스트와 주제별 리스트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 방안을 마련한 까닭도 이러한 필요성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목록 구축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검색을 위한 도구로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과 개선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나오며

처음 학생들과 함께 “(사)아시아공동체 부설 국제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한 후 이들 자료에 대한 목록을 구축하는 일을 추진해 보기로 결정했을 당시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도서관이라고 하기에 너무도 열악한 환경. 그러나 도서관에 대한 열정만은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 아이들에게 엄마나라의 책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반쪽짜리’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 도서관을 만들게 된 배경이었다는 덤덤한 첫 마디와 달리, 자료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외형적으로나마 도서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열정 그 이상의 무엇이 느껴졌다. 이것이 필자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이번 작업에 참여하게 된, 아니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유였다. 그러나 작업의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경험도 없이 순수한 마음만으로 뛰어든 학생들과, 다문화 장서의 목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한계를 경험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을 모두 헌납하면서까지 작업에 최선을 다했던 학생들과 함께 한 이번 작업은 필자에게 많은 감흥과 교훈을 주었다.

이 연구는 순전히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사)아시아공동체 부설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의 경험과 고민의 과정을 이 연구를 통해 고스란히 풀어내고자 했던 목적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다문화 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도서관들이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개별 도서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그리하여 혼란과 무질서가 더욱 양산되는 상황이 초래되기 이전에 우리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가 공동으로 나서서 목록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에 대한 국내외 도서관계의 기존 논의를 폭넓게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그리고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운영하는 민간도서관의 경험과 사례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북미 도서관계의 사례와 “(사)아시아공동체 부설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직접 목록을 구축한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도서관계에서 다문화 장서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필자는 ‘도서관문화’와 ‘협력’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된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낸 북미 도서관계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또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발적인 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과 방안은 무엇이였을까? 특히, 개인주의적 문화가 잉태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도서관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협력과 공동 작업의 풍습이 오랜 기간 내재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의식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협력은 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실천방안을 찾는다면, 다문화 장서의 목록 구축은 물론이고, 현재 많은 도서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장서의 수집이나 서비스 방안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